

“미안마산 녹두 1000t 농약 범벅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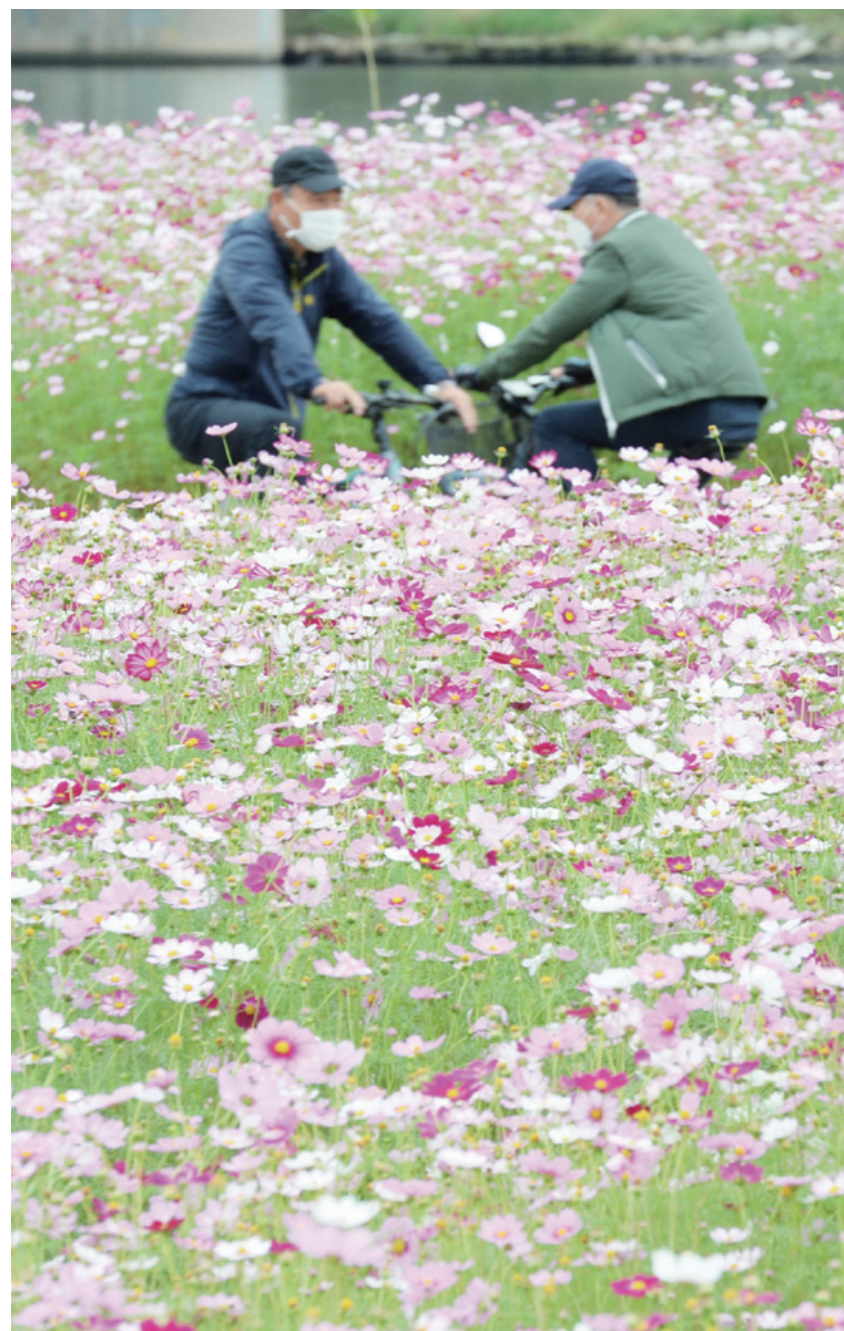
수입 녹두 1000t 중 회수는 86t뿐 나머지는 이미 판매돼 김선교 의원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전수검사로 전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미안마산 녹두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돼 수입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aT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간 안전성 검사 목적의 샘플과 본제품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농산물을 수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항공편으로 곧바로 운송되는 안전성 검사용 수입농산물 샘플과 선박으로 길게는 몇 달에 걸쳐 운송되는 실제 수입농산물이 다른 제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aT가 지난해 4월 미안마로부터 2차례에 걸쳐 녹두를 각각 500t씩 총 1000t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실시한 통관 안전성검사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판매돼 시중에 유통된 문제의 녹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이 실시한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발견됐다. 이는 통관 안전성 검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검출된 농약은 티아메톡삼으로 당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기준 규정은 0.01mg/kg이었지만 해당 녹두에선 이보다 2~5배 많은 0.02~0.05mg/kg의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이렇게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물량 구매업체에 즉시 안내를 하고 재고를 파악 한 후 회수·반품 절차를 거쳐 전량 폐기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미 구매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버려 회수된 물량은 1000t 중 86t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현재 수입농산물의 안전성검사 샘플 채취를 공급업자에게 일임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이 먹는 농산물인 만큼 안전성검사가 실제 수입품의 입항일 자보다 늦은 모든 수입농산물은 반드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안전성 검사 샘플 채취를 공급업자가 아닌 수입기관이 직접 맡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을 소식전하는 코스모스 13일 울산 중구 태화강변에 가을 소식을 전하는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다.

차량서 금품 훔친 혐의 20대 코로나 확진에 뒤늦게 구속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2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 검거가 열흘 미뤄졌다가, 구속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문이 열린 차량에서 수 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7)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새벽시간대 광주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승용차에 침입, 현금 4500만 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 도박 빚을 갚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차털이 범행을 일삼다 수감, 올해 2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차 구입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지난달 17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한 의료기관에서 격리 치료를 받자 영장 집행을 미뤘다.
경찰은 A씨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방역당국 통보에 따라, 열흘여 뒤인 지난달 28일 검거했다. 이후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기동취재본부

순천 차량 용품 공장 ‘화재’

13일 오전 6시께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한 차량 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소방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내부 세탁실이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641만7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의 공장동 1층 세탁실에서 시작돼 2층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완도해경, 좌초·침수 선박 신속 구조..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 없어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8일 오전 7시경 완도군 신지도 혈도 해상에서 문어통발 조업중이던 A호(9.77톤, 완도선적, 승선원 3명)가 암초에 좌초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에 나서 무사히 구조 완료 했다고 8일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담양소방, 자연환경해설사 교육생 대상 응급처치교육

담양소방서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를 도전하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생태도시21 담양협의회 교육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담양=박종영기자



보성경찰, 등굣길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보성경찰서(서장 오임관)는 10.13(수) 보성 군청 앞 사거리에서 보성군청과 보성교육지원청, 교사,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및 모범운전자회 등 관내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기동취재본부



여수 화양파출소, 농산물 절도 예방 홍보 활동 실시

여수경찰서 화양파출소(소장 김영춘)는 12일(화) 화양면사무소에 개최된 화양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농산물 절도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여수=오상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